

복식의 미적 범주

— 르네상스 · 바로크 복식에 적용하여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최수현 · 김민자

目 次

- I. 서론
- II. 미적 범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복식에 있어서 객관적 의미의 미와 주관적 의미의 미
 - 2. 복식의 미적 범주
- III. 미적 범주를 적용한 르네상스 · 바로크 복식미
 - 1. 르네상스(16세기)
 - 2. 바로크(17세기)
- IV. 결론
- ABSTRACT

I. 서론

복식은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미적 가치를 안고 있는 미적 대상이다. 복식미 연구는 19세기 후반 William Morris의 예술공예운동 이후 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계기로 시작되어, 주로 복식의장학, 서양복식사, 복식사회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복식디자인 요소, 원리 또는 보편적인 시대 정신에 따라 복식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복식미를 객관적 의미의 미로써만 파악했기 때문이다. 객관적 미론은 '미란 수에 입각한 비례나 조화와 같은 객관적, 형식적 성질에 있다'고 믿었던 고대 그리스의 미사상에서 유래하여 르네상스 시대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그

러나, 18세기에 이르러서는 Baumgarten에 의해 '감성적 인식의 학'인 미학이 성립되면서부터 '미란 대상과 인간 마음의 관계에서 환기된 어떤 즐거움이다'라는 주관적 미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서구 미이론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복식미도 또한 객관적 의미의 미 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미의 미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문호¹⁾와 조규화²⁾는 복식미학 연구에서 이미 객관적 의미의 미와 주관적 의미의 미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주관적 의미의 미론에 근거해 확대된 미의 다양성을 복식의 미적 범주로 파악했다. 특히 최근에 금기숙³⁾은 복식을 통한 미의식의 탐구는 객관적 미론, 취미론, 미적 태도론의 상호보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김영자⁴⁾는 한

1) 장문호, 『복식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pp. 1~16, 186
 2)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9), pp. 9~31, 333
 3)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1994), p. 17
 4)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1992), pp. 17~27, 259~278

국복식의 미를 탐구함에 있어서,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조형미를 객관적 의미의 미로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내적 의지의 정신적 미를 주관적 의미의 미로 보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한국 복식미를 갖춤의 미와 추 등의 미적 범주로 파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복식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학에서 연구되어 온 미 개념 특히 객관적 의미의 미와 주관적 의미의 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식의 미적 범주를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복식의 미적 범주 개념을 적용하여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복식미를 미적 범주 즉 주관적 의미의 미 개념으로 분석,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선정한 것은 Wölfflin이 그의 『예술사의 기본원리(Principles of Art History)』에서 언급한 것처럼 르네상스 예술과 바로크 예술은 뚜렷하게 대비되는 예술이므로 두 시대 복식미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미적 범주를 다룰 수 있고, 복식에 있어서 객관적 의미의 미 개념과 주관적 의미의 미 개념을 명확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II. 미적 범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복식에 있어서 객관적 의미의 미와 주관적 의미의 미

미학에서 미를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향은 미의 성립 근거를 대상에 두는 객관적 의미의 미와 주체 즉 인간에 두는 주관적 의미의 미이

다. 객관적 의미의 미란 미적 감정이나 미적 판단의 원인이 객체 즉 대상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성립하는 미이다. 미를 결정하는 성질을 미적 대상의 비례·질서·균형·조화 등의 형식적 성질이나 정신·이념 같은 추상적 실체로 보고 이를 연구한다. 주관적 의미의 미란 ‘미는 미적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의 태도 즉 인간의 정신적 방향에 따라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성립하는 미이다. Giordano Bruno⁵⁾의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만 아름다울 뿐이다.’라는 말은 주관적 의미의 미를 잘 대변해 준다.

전통적으로 복식미 연구는 주로 객관적 의미의 미로 이해되고 연구되어 왔다. 즉 복식미를 결정하는 성질은 복식의 형식적 성질이나 그것이 표현하는 보편적 이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선·색채·재질 등의 형태적 특성은 복식 디자인의 요소로, 비례·질서·균형·조화 등의 형식적 성질은 복식 디자인의 원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성질과 복식이 표현하는 보편적 이념 즉 시대정신이나 사회·문화적 상징성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 복식미를 탐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객관적 의미의 복식미 연구에 비하면 주관적 의미의 복식미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관적 의미의 미로서 복식의 이미지 그리고 미적 가치의 체험인 미의식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장문호⁶⁾와 조규화⁷⁾는 주관적 의미의 미로 미적 가치와 그 체험인 미의식에 대해 언급했으며, 김영자⁸⁾는 한국 복식미의 외적인 특징은 내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예(禮)사상을 통해서 실증함으로써 주관적 미를 연구했다. 류기주⁹⁾는 인체에 대한 미의식을 천상의 인체미

5) Tatariewicz, W., 이용대(역),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서울 : 이론과 실천, 1990), p. 242

6) 장문호, op. cit., pp. 14~16

7) 조규화, op. cit., pp. 10~13

8) 김영자, op. cit., pp. 1~4

9) 류기주,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연구-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시대까지-”,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p. 82

추구와 자연의 인체미 추구로 파악했다. 한편 금기숙¹⁰⁾은 조선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복식의 미적 특징으로부터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라는 미적 가치를 추출해 냈다. 그리고, 최세완¹¹⁾은 한국복식의 미는 자연주의적 미, 주술적 미, 의례적 미, 보수성향의 미라 했다.

그런데, 복식미의 연구에서 미의식과 미적 가치를 다루는 데에는 몇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로 '미적 가치'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미추출의 객관적 틀의 문제점을 들 수 있겠다. 미적 가치란 복식이라는 대상에 의해서 느껴지는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 자체이다. 복식이라는 미적 대상이 미적 주체(개인 또는 집단)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적합할 때 미적 주체는 미적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미적 가치로 언급되어 온 내용들은 미적 가치 자체가 아니라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판단 기준을 그대로 '~미'라고 하기 보다는 '~한 특성에서 미적 가치를 느끼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편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라는 명명 작업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미지 연구나 미의식 연구에서와 같이 인간 즉 주체의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의미의 미 연구에서도 객관적인 형식을 함께 다루어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상으로서의 복식의 객관적 성질과 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은 서로가 개연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복식의 객관적인 성질이 인간에게 미적인 감동을 주며, 인간의 미의식에 따라 복식이 만들어지면서 그 객관적인 성질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미론이나

주관적인 미론 중 어느 한쪽만으로는 복식미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복식미의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미개념과 주관적인 미개념을 보완, 수용하여 주·객관적인 연구 방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복식의 미적 범주

"미는 다양하다"¹²⁾는 Giordano Bruno의 말처럼 미적 현상의 영역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Payne-Knight¹³⁾는 '모든 대상은 사람의 연상에 따라 아름답고 추할 수 있으며 그 연상은 개개인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주관적인 미론을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에서처럼 주관적 의미의 미개념은 미를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관에 따른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관적 의미의 미에 근거할 때 미의 영역은 더욱 다양하게 확대된다.

무수히 많은 미의 다양성 중에서 많은 수를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다양성을 미적 범주라 한다. 즉, 미적 범주란 그 근거에 미적인 정신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통의 원리적 구조나 성격을 띠면서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미의 특수상들을 對目的 공통성과 對他的 특질성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개념(類型概念)으로 구분한 것이다.¹⁴⁾

범주론을 확립한 칸트에 따르면, 표상의 다양에 대한 인식은 종합을 수반해야 하는데, 종합은 오성(悟性)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오성의 인식은 개념에 의한 인식으로 판단의 논리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판단의 논리적 기능이 바로 범주이다. 모든 표상의 다양은 판단의 논리적 기능에 의하여 객관적인 통일에 이르게 된다.¹⁵⁾ 이와 같

10) 금기숙, "朝鮮時代 服飾에 表現된 韓國人의 美意識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8, p. 295

11) 최세완,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p. 59

12) Tatarkiewicz, *op. cit.*, p. 179

13) *Ibid.*, p. 165

14) 竹內敏雄, 안영길 외(역), 『미학 예술학 사전』 (서울: 미진사, 1990), pp. 268~269

15) 허재운, "Kant의 認識論에 있어서 範疇의 客觀的 妥當性의 문제",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6, pp. 21~34

이 모든 표상의 다양은 범주에 의해서 종합통일되며, 범주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

미적 범주는 주관적 의미의 미개념에 의해 다양해진 미를 對目的 공통성과 對他的 특질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복식의 주관적 의미의 미, 미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복식미학에서는 장문호와 조규화가 주·객관적 의미의 미 연구로써 미적 범주의 개념을 사용했다. 장문호¹⁶⁾는 미적 가치 판정과 미적 성격의 양상이라는 의미의 '룩(look)'을 미적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했고, 조규화¹⁷⁾는 쉬크(chic)·랜디(dandy)·이끼(いき)·아름다움·멋을 미적 범주로 제시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종래의 미적 규범을 일탈하고자 했던 펑크(Punk) 패션이나 거지처럼 보이는 그런지 룩(grungy look)의 유행 등으로 인해 추도 복식의 미적 범주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김영자¹⁸⁾는 추가 복식의 미적 범주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한국 복식미를 갖춤의 미와 추 등의 미적 범주로 파악했다. 추의 미적 가치의 인정은 복식미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복식미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 타당한 미적 범주가 필요하다.

미학에서는 Kant가 미의 다양성 중에서 많은 수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다양성을 미적 범주라 지칭한 이래로 많은 미학자들이 미적 범주를 연구했는데, 19세기의 Vischer¹⁹⁾는 숭고한 것과 희극적인 것의 두 범주를 제시했고, 20세기의 Lalo²⁰⁾는

미적인, 장려한, 우아한, 숭고한, 비극적인, 극적인, 해학적인, 희극적인, 익살스러운 것들의 9개의 범주로 세분하였으며, Moore²¹⁾는 미, 숭고, 장려, 어여쁨, 박진, 웅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Tatar-kiewicz는 이러한 미적 범주들을 총괄하여 적합성·장식·우미·우아·섬세·숭고·미(협의)·고전적 미·낭만적 미를 제시했고, 竹內敏雄²²⁾는 이외에 추·비장·골계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Tatar-kiewicz의 미적 범주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竹內敏雄의 범주 개념을 보완하여, 복식의 미적 범주로 미(협의)²³⁾·우아·우미·숭고·비장·골계·적합성·추를 살펴보았다.

1) 미(협의의 미) (美 : beauty)

미(협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전적 형식미로, '완전성, 규칙성과 법칙성의 미'이다. 그러므로 대상의 올바른 비례, 부분들의 조화, 질도의 유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대상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 성질로 불변하는 것이므로, 지식과 이성에 따르는 미이다.

미(협의)는 미적인 것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형태로, 가장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미적 범주이므로, 복식미도 주로 이 미(협의)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균형·비례·리듬 등은 복식 디자인의 원리로 이용되며, 이를 통해 미(협의) 측면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복식 디자인의 목표로 이해되고 있다.²⁴⁾ 고전적인 그리스

16) 장문호, op. cit., p. 186

17) 조규화, op. cit., p. 333

18) 김영자, op. cit., p. 259~278

19) Tatar-kiewicz, W., op. cit., p. 184

20) Ibid., p. 185

21) Ibid., p. 186

22) 竹內敏雄, op. cit., pp. 268~283

23) 미라는 단어는 그 개념의 포괄영역이 다른 협의와 광의의 이중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로서의 미 (beauty / das schöne)는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전적 형식미로, 추·우아·섬세·숭고 등과 다른 개념이다. 이에 반해, 광의의 미(Aesthetic / das Ästhetische)는 미학이 연구하는 가치현상의 전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추하거나 우아하거나 섬세하거나 숭고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미와 협의의 미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미를 광의의 개념으로써 파악하고, 미라는 단어가 협의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미(협의)로써 표시하였다.

24)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1985), p. 33

· 로마 복식은 그 조화로운 안정성으로 미(협의)를 느끼게 하는 대표적 복식이라 할 수 있다.²⁵⁾

2) 우아(優雅 : grace)

우아는 정신을 통하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아 줄 께게 하는 것이다.²⁶⁾ 이렇게 자유롭고, 불가지(不可知)하다는 점에서 Lipps²⁷⁾는 우아를 무의식적이며, 무외지적인 미라고 했다. 우아는 우미(comeliness)와 매우 유사한 범주이다. 그러나, 우미가 고요함, 심오함 등의 정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우아는 정신적 측면을 배제하고 감성적 측면이 표현된 외면적 운동에 중점을 둔 범주이다. Hogarth²⁸⁾는 우아의 대상적 특성을 유연하고 자유로운 파상적 곡선운동으로 보고, 움직이지 않는 대상일지라도 선적 가상(linear semblance)으로 우아한 動態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유기적 곡선의 화려한 꽃모양과 파상 부늬가 지배적인 18C 로코코 미술양식의 미는 우아미로 대표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화려한 꽃무늬, 많은 러플, 리본과 레이스로 장식한 로코코 복식의 미도 우아로 대표될 수 있다.

3) 우미(優美 : comeliness or elegance)

우미는 로마 시대에 여성적인 미를 뜻하는 베누스타스(venustas)에서 기원하는 범주로, 후에 Schiller²⁹⁾와 Volkelt³⁰⁾는 우미가 인간의 감성과 정신이 조화, 균형된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했다. 복식미 범주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쉬크(chic)'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라는 점에서 우미와 유사한 범주이다.

4) 숭고(崇高 : the sublime)

숭고는 원래 '높이'라는 의미로써, 고대에는 '장엄(grandis)', '장중(grauf)'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Burke는 숭고는 고통, 위험, 공포 같은 관

념이 직접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서 존재할 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쾌감이라고 했다. 이처럼 숭고는 인간이 대상에 압도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아를 고양하면서 쾌와 불쾌의 혼합감정인 긴장감을 느낄 때 성립하는 미이다. 숭고미의 대상적 특징은 수·량·힘 등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몰형식성(沒形式性)과 몰한계성(沒限界性)을 갖는다는 점이다. 복식에서 숭고미의 추구는 수직적 강조, 면적의 강도 등 복식을 이용한 신체 확장의 효과로 인간의 위엄과 지위를 과시하고자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비장(悲壯 : the tragic)

고귀한 인간행위와 의지로 성립되는 인간적 위대성이 침해되고 멸망될 때 우리는 고뇌를 느끼게 되는데, 치열한 고뇌에 의해서 오히려 가치감정이 강화·고양되는 데에서 비장미가 성립한다.³¹⁾ 즉 비장미는 '쾌와 불쾌라는 상반되는 감정이 고뇌에 의해 가치 상승한 것'이다. 이에반해, 단순한 고뇌에 머무르는 감정을 비애미라 한다.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검은색 의상에서는 죽음과 슬픔의 비애미를 느끼며, 수도자와 성직자를 위한 종교 복식에서의 검은색 의상에서는 고뇌를 초월하고 신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비장미를 느낀다.

6) 골계(滑稽 : the comic)

기대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의외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느껴지는 미적 쾌감을 골계라 한다. 골계의 대상적 특성은 형체의 이상성(異常性), 착오적인 행동이나 동작이며, 주관적 골계로는 기지(wit), 풍자(satire), 아이러니(irony), 유머(humour) 등이 있

25) Wilson, E.,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don : Virago Press, 1985), pp. 20~21

26) Tatarkiewicz, W., op. cit., p. 197

27) 竹内敏雄, op. cit., p. 274

28) 백기수, 『미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p. 78

29) 竹内敏雄, op. cit., p. 274

30) Ibid.

31) Ibid. pp. 277~278

다.³²⁾ 고대로부터 희극적인 의상은 과장된 형태와 밝은 색상에 의존해 왔다.³³⁾ 타슬(tassel)과 스칼럽(scallop) 장식, 알뜰달뜰한 색채, 팬탈롱(pantalon)의 어릿광대 복식은 과장된 형태와 밝은 색상의 골계미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복식이다.³⁴⁾

7) 적합성(適合性 : Aptness)

적합성은 객관적 미의 관점으로는 용도에 부합하는 대상의 성질 즉 '효용성'을, 주관적 미의 관점으로는 사회적 지위에 부합하는 인간의 자질 즉 '타당성' 또는 '격식'을 의미한다. 기능주의 전성기의 디자이너 Chanel은 적합성의 미를 추구했던 디자이너로, 그녀의 복식은 실용성, 기능성, 단순성, 합목적성을 띠고 있다.³⁵⁾ 김영자³⁶⁾는 한국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복식미를 논하면서 '갓춤의 미'를 제시했는데, 이는 신분에 대한 적합성과 남·녀에 따른 적합성의 미에 해당된다.

8) 추(醜 : ugliness)

추는 미(협의)에 대립되는 범주이다. 그러므로, 미(협의)를 추구했던 고전적 미학에서는 추를 미와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추에 대한 반응은 미적인 것에 대한 반응과 같은 기작에 의해 이루어지며 때로는 그 '충격효과'가 미에 대한 반응 못지 않게 강력하므로,³⁷⁾ 추도 하나의 미적 범주로 성립한다. 추의 '충격효과'는 미적인 인상에 활기와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추를 느끼게 하는 미적 대상의 형식적 특징은 무형태·불균제·부조화의 '물형식성'이며, 내용적 특징은 '왜곡'이며, 표현적 특징은 '부정확성'이다.³⁸⁾ 기존의 미적 규범을 일탈하고자 했던 펑크(Punk) 패션이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거지처

【표 1】 미적 범주 개념의 중심단어 추출

범주	미적 범주 개념의 중심단어
미(협의)	맑음·깨끗함·형식·비례·규칙적·고전적(타타르키비츠), 완전·규칙·법칙(스칼리거), 융합·조화·정적인(피셔), 완전·적합·조화(콘), 이상·조화·합일(덜타이&데스와), 명석한(페트라르카), 순수(페히너), 형식(폴켈트), 법칙(펠리비엥)
우아	감성적·외면적·경쾌함·유창함·운동(다게우찌 도시오), 유연한·자유로운·과상적·폭선운동(호거스), 운동(지백), 무의식적·무의지적·외부적(립스), 마음·무법칙(펠리비엥), 자연스러운·자유로운·여성적인(타타르키비츠), 감각적(케이즈), 不可知(바르키)
우미	이성과 감성의 조화·동정·사랑(셀러), 가련함·섬세함·연약함(바이에), 고요함·심오함(립스), 정신과 감성의 조화·균형(폴켈트)
숭고	물형식성·물한계성·초월·압도·긴장감(다게우찌 도시오), 높이·비범·웅장·무한·경이(가짜 롱기노스), 초월(윌러), 장엄·장중(타타르키비츠), 연장·무한성(버크), 고매함·현격함(흠), 경이·위대(펠리비엥), 무한정(지백), 원대한(제라드), 초감성적(칸트)
비장	인간적 위대성·대조감정(폴켈트), 고뇌·몰락(립스), 초윤리적·인간존재(다게우찌 도시오), 중압·존경·공포(호프만)
골계	경쾌화·해방·자유성·돌연함·놀라움·공허함(호프만), 착오적인·의외성·놀라움·모순(다게우찌 도시오)
추	무형태·불균제·부조화·왜곡·물형식성·부정확성(크란쯔), 충격효과(타타르키비츠)

32) Ibid., pp. 278~280

33) Hollander, A.,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 Avon Books, 1980), p. 265

34) Ibid., p. 263

35) 강진석, "샤넬복식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클래식 스타일"에 관한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pp. 52~53

36) 김영자, op. cit., pp. 257~271

37) Tatariewicz, W., op. cit., p. 185

38) 竹内敏雄, op. cit., pp. 282~283

럼 보이는 그런지룩(grungy look)도 추가 복식의 미적 범주로 성립함을 입증해준다.

앞의 【표 1】은 미학 이론가들이 위에 제시한 미적 범주들에 대해서 언급한 중심단어들을 추출한 것으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미적 범주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틀로써 사용하고자 한다.

Ⅲ. 미적 범주를 적용한 르네상스·바로크 복식미

1. 르네상스(16세기)

이 시대 전반적인 미의 기준은 대칭과 질서, 정적인 특성이다. 르네상스 시대 조형예술의 표상형

식을 간단히 언급한다면, 외복·인체·가구·조각·회화·건축 모두에 있어서 견고한 형태가 안정된 배열을 이루었고, 외곽선은 정확한 직선과 곡선이었으며, 색채는 선명하고, 재질은 편평하고 부드러웠다.³⁹⁾ 이러한 미 위에서 성립된 르네상스 복식은 매우 조화롭고, 정적으로 디자인·제작·장식되어 인체라는 기본 틀에 꼭 맞는 가구와 같았으며,⁴⁰⁾ 풍부한 질감의 팽팽하고 매끄러운 퍼짐을 특징으로 하고,⁴¹⁾ 콜셋(corset), 파딩게일, 패드(pad)로 복식의 형태를 정형화시켰다. 색채는 남성은 주로 검은색, 여성은 짙은 청색, 암자색 등의 어두운 색조가 주류를 이루었다.⁴²⁾

다음에 제시한 【표 2】는 복식사 서적인 Boucher의 『20,000 Years of Fashion』, Contini의 『Fashion』, Payne의 『History of Fashion』, 정홍

【표 2】 르네상스 복식의 미적 범주

비평가 범주	Boucher 『20,000Years』	Contini 『Fashion』	Payne 『History -』	정홍숙 『복식문화사』
미 (협의)	조화, 대칭, 균형, 순수한, 기하학적인, 정확한, 냉정한, 엄격한	조화, 균형, 완전한, 정확한, 로마적인, 그리스적인	조화, 균형, 양상불, 완벽, 단순한, 정돈된, 기하학적인, 매끈함	조화미, 비례, 규칙적인, 단순한, 고전의, 엄격함
우아	우아, 부드러운	우아, 부드러운	부드러운	우아한
우미	우미, 섬세한, 가냘픈	우미, 섬세한	정교한, 미세한	정교한, 섬세한
승고	장엄한, 엄숙한, 당당한, 거대한, 강한, 뻣뻣한, 과장	장려한, 위대한, 권위, 거대한, 연장된, 무거움, 강한, 뻣뻣한, 과장	웅장한, 엄숙한, 당당한, 늠름한, 풍성한, 과장	장엄한, 당당한, 근엄한, 위엄, 박력, 위력, 권세, 딱딱함, 양감, 과장된
비장				
골계	즐거움	놀라움	우스꽝스러운	
추				기이한

39) Roach, M., Musa, K.,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New York : Nutriguides Inc., 1980), p. 47

40) Ibid.

41) Hollander, A., op. cit., p. 352

42) Bell, Hyman, *The Anatom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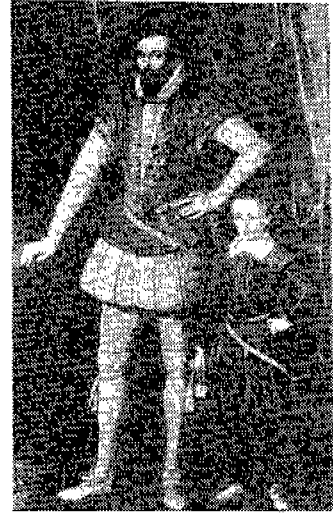
숙의 『복식문화사』에서 복식미를 나타내는 명사와 형용사를 추출하여 앞의 【표 1】에 근거해 범주화한 것이다.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르네상스 복식의 주된 미적 범주는 조화와 대칭과 균형의 미(협의)와 장엄하고 거대한 숭고였다. 다음은 미(협의), 숭고, 우미, 골계를 느낄 수 있는 르네상스 복식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1) 미(협의)

르네상스 복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형의 엄격한 위엄과 전체적인 조화미이다.⁴³⁾ Hollander⁴⁴⁾는 르네상스 시대의 드레스는 그 자체가 예술이었고, 완전무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복식의 전체적인 조화미는 우선 그 형태적 통일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몸체와 소매는 각각의 입체적 표현이 강하되,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일된 입체감을 형성한다.⁴⁵⁾ 【그림 1】은 사각형의



【그림 1】 황금비율의 안정과 조화, 미(협의)의 복식미 (캐더린의 초상), Contini, M., *Fashion*, p.139



【그림 2】 비례와 조화, 미(협의)의 복식미(윌터경과 그의 아들),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p.237

네크라인과 아래로 넓게 퍼지는 형태의 겹소매와 스커트가 안정감있는 조화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몸체와 스커트의 앞중심 사이로 보이는 페티코트의 비례에는 3:5의 정확한 황금비율이 적용되어 있다. 미(협의)는 엄격한 비례와 법칙의 미이다. 【그림 2】의 복식에서는 법칙에 따라 구성한 것 같은 미를 느낄 수 있다. 상·하의 비례는 이상적인 인체비례를 잘 나타내주며, 패드를 이용해서 주름없이 구성된 더블레(doublet)와 펌프킨 브리치스는 매끄러운 다리와 조화를 이룬다.

2) 우미

르네상스 복식은 엄격한 지식과 이성에 따르는 정신적인 미의 측면을 갖고 있으며, 지식과 감성의 조화가 이루어진 우미의 범주에 속한다. 러프(ruff) 칼라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머리에 가까운 목부분을 장식하여 강조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미의 추구로 볼 수 있다.

43)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8), p. 135

44) Hollander, A., op. cit., p. 261

45) 최연정, "Renaissance時代 服飾에 나타난 美意識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87, p. 58

3) 숭고

복식사에서 16세기는 과장의 세기였다.⁴⁶⁾ 16세기 복식의 전반적인 느낌은 역사상 가장 웅대하다는 Payne⁴⁷⁾의 말처럼 16세기 복식에서는 웅대한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귀족계급에서는 패드, 콜셋, 파딩제일을 사용하여 실루엣을 극도로 과장시키고, 보석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자신들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고자 했다.⁴⁸⁾ 르네상스 복식은 외관상 입체적으로 넓이를 증대시킨 체적적(dimensional) 형태의 복식이다.⁴⁹⁾ 【그림 3】은 헨리8세의 복식으로, 패드와 퍼프를 이용해 상체에 과장적인 양감을 형성하여 남성적인 위엄의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림 4】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인데, 원통형의 오스꺼로 부풀린 스커트와 크게 부풀린 소매, 건축의 도움 지붕을 연상케 하는 스커트의 장식선으로 권위의 숭고미를 느낄 수 있



【그림 4】 권위적 양감과 확고한 형태, 숭고의 복식미(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 Davenport, M., *The Book of Costume*, p.444



【그림 3】 부피와 양감의 위엄, 숭고의 복식미 (헨리8세의 초상), Laver, J., *Costume & Fashion : A Concise History*, p.82

다. 러프 칼라는 독 장식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특권 계급을 상징하는 의복의 권위적 요소중의 하나이다.⁵⁰⁾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의 복식을 살펴보면, 권위적인 러프 칼라 이외에도 가장자리를 레이스로 장식한 아치형의 크고 높은 철사에 베일(veil)이 달려 어깨뒤로 늘어뜨린 것이 있는데, 이는 마치 후광과 같은 느낌으로 여왕의 숭고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4) 갈게

16세기 초의 호즈는 몸에 딱 맞으며, 색이 화려하거나 줄무늬가 있었는데, 두 다리가 자주 다른 형태로 되어있었다.⁵¹⁾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다리의 모양을 다르게 한 호즈에서, 두 다리는 같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모순됨에 인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성기를 넣는 장식 주

46) Black, J. A., Garland, M., *A History of Fashion* (London : Orbis Publishing Limited, 1985), p. 103

47) Payne, B.,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65), p. 261

48) 최연정, op. cit., p. 56

49) 유송옥, 『服飾意匠學』 (서울 : 수학사, 1980), p. 20

50) Laver, J., *Costume & Fashion : A Concise History* (New York : Thames and Hudson, 1986), pp. 90~91

51) Payne, B., op. cit., p. 265



【그림 5】 모순적인 형태, 골계의 복식미, Payne, B., *History of Costume*, p.268

머니인 코드피스는 남성적 권위의 과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사나운 놀라움과 환멸감을 주는데,⁵²⁾ 르네상스의 관능적이고 유희적인 태도에 의해서 이를 극복하여 오히려 자수, 보석, 슬래시(slash)등으로 과다하게 장식한데에서 골계미를 느낄 수 있다.

2. 바로크(17세기)

이 시대 전반적인 미의 기준은 비대칭, 극적인 요소,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움직임, 동적인 특성이다. 조형예술의 표상형식을 간단히 언급하면, 형태는 과다한 장식으로 극적으로 과장되고, 외곽선은 톱니모양이거나 하늘거리고, 색채는 따뜻하거나 또는 회미하거나 무채색의 진한 색상이며, 또 재질은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다.⁵³⁾ 이러한 미위에서 성립된 바로크 복식의 색채는 대체로 심홍색, 갈색등의 어두운 색조가 주류를 이루었고,⁵⁴⁾

재질은 다른 실내 장식품들과는 달리 유동적이고 빛나는 직물이 많이 이용되었다.⁵⁵⁾ 복식 전체에 물결치듯 흐르는 곡선, 리본(ribbon)·레이스(lace)·프릴(frill)등의 과다한 장식, 유기적인 C자형의 직물문양 등이 특징이다. 【표 3】은 앞서 르네상스 복식의 미적 범주를 분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바로크 복식의 미적 범주를 분석한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로크 복식의 주된 미적 범주는 비대칭·부조화·기이한 형태의 추,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경쾌하며 환상적인 우아, 장엄과 권위의 숭고였다. 다음은 추, 우아, 숭고, 골계를 느낄 수 있는 바로크 복식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1) 우아

바로크 복식은 이론적인 조화가 아닌 자연적인 감정 표현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불가지하며, 감성적인 우아를 표출하고 있다. 우



【그림 6】 부드러운 실루엣, 우아의 복식미, Black, J. A., Garland, M., *A History of Fashion*, p.141

52) Roach, M., Musa, K., op. cit., p. 13

53) Ibid., p. 47

54) 김영자, "17세기 建築工藝에 나타난 바로크樣式과 服飾에 表現된 造形性에 關한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20(1), 1982, p. 44

55) Roach, M., Musa, K., op. cit., p. 47

【표 3】 바로크 복식의 미적 범주

비평가 범주	Boucher 『20,000Years』	Contini 『Fashion』	Payne 『History-』	정홍숙 『복식문화사』
미(협의)		냉정한		질서
우아	우아, 매력적인 여성적인, 부드러운, 환상적인, 흐르는듯한, 너울거리는, 곱슬곱슬한, 운동, 변화, 자유	우아, 활발한, 여성적인, 하늘거리는, 환상적인, 가벼운, 주름진, 자유, 변화	우아,매혹적인, 여성적인, 부드러운, 환상적인, 경쾌한, 자유로움, 파상, 굴곡, 현혹	우아한, 유연한, 매력적인, 여성스러움, 부드러운, 열정적, 감각적, 경쾌한, 리듬, 자유로운, 파상선, 소용돌이, 곡선적인
우미	가냘픈, 섬세한	섬세한	정교한	섬세한, 정교한, 연약한
승고	장엄한, 엄숙한, 권위, 무한한, 넓은, 뽀뽀한	과장, 뽀뽀한	위풍당당한, 무제한, 부피감, 뽀뽀한	위엄, 과장, 강함
비장				
골계	영똥한	우스운	우스꽝스러운	
추	이상한, 기이한, 지나친, 비대칭	기괴한, 지나친	흥한, 괴상한, 지나친, 대조, 부자연스러운	부조화, 불규칙, 황당무계함, 천박한, 남용, 과대장식



【그림 7】 여성적 울동미, 우아의 복식미(메리여왕의 초상), *The History of Dress*(슬라이드 줌에서)

아미의 특성은 부드럽고 자유로운 운동에 의한 동적 이미지이다. 바로크 복식의 부드러움은 우선 그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6】 부드러운 직물에 주름에 의해 생기는 울동감과 음영, 레이스·리본·프릴·리플·프린지·플라운스(flounce)·타수·자수 등의 넘쳐흐를 듯한 장식에 의해 생기는 울동적인 움직임은 바로크 복식의 우아미를 형성한다. 【그림 7】에서는 바로크 우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화려한 레이스의 풍탕주 헤어스타일과 앙가장트로 귀엽고 여성적이고 울동적인 우아를 느낄 수 있다.

2) 승고

복식에서 승고미는 주로 복식을 이용한 신체 확

장의 효과로 인간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풍부한 양감(量感)과 장려(壯麗)함으로써 귀족적 권위를 나타냈던 바로크 복식에서도 숭고미를 느낄 수 있다. 복식에서 무거운 로브(robe)는 권위와 신성을 의미한다.⁵⁶⁾ Horgarth⁵⁷⁾는 묵직한 주름은 우아함에 위대함을 더한다고 말했다. 라파엘과 그 제자들은 묵직한 드레이퍼리(drapery)를 이용해 인체를 엄숙하게 표현했다.⁵⁸⁾ 그런데, 바로크 시대는 어디까지나 16세기 르네상스의 장엄함의 조류로부터 18세기 로코코의 우아함으로의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복식에서 느껴지는 숭고미는 르네상스 시기보다 훨씬 덜 중요하였다.

3) 추

복식사에서 17세기는 불일치의 세기이다.⁵⁹⁾ 바로크 복식은 불안정 속에서 동감을 기조로 한 복식이었다. 르네상스 복식이 엄격한 비례와 조화, 안정을 추구했던 미(협외)의 복식인데 반해, 바로크 복식은 비례와 규격을 무시하고 과다한 장식을 사용한 추의 복식이다. 【그림 8】의 여성 로브의 전체적인 비례는 3:5의 황금비율을 완전히 무시한 형태이다. 소매길어도 3등분되어 등분을 피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임신부를 연상시킬 정도로 배부분의 형태가 왜곡되어 있다. 【그림 9】에서도 황금비율에 어긋나는 비례와 기괴한 형태의 랭그라브(rhingrave)로 인해 미(협외)에 반대되는 추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신사의 복식은 모자 끝에서 네모난 구두 끝까지 모든 세부 장식까지도 정평있는 형이라는⁶⁰⁾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추의 범주가 약취미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우아나 숭고와 동등한 미적 범주였음을 알 수 있다.

4) 끝맺

바로크 시대 복식의 기괴하고 이상한 형태는 고



【그림 8】 형태의 왜곡, 추의 복식미(Magdalena Sybilla 공주),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p.275



【그림 9】 비례의 무시, 추의 복식미, Black, J. A., Garland, M., *A History of Fashion*, p.140

56) Hollander, A., op. cit., p. 81
 57) Ibid., p. 80
 58) Ibid., p. 52
 59) Black, J. A., Garland, M., op. cit., p. 125
 60) Payne, B., op. cit., p. 343

전적 형식미에 반대된다는 점에서 추로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형태의 이상성(異常性)에 인한 골계미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입술화장을 녹색이나 검정색으로 했는데, 녹색이나 검정색의 입술은 입술색은 붉은 색이어야 한다는 기대에 모순되어 마치 어릿광대 같은 골계미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이 르네상스 복식의 주된 미적 범주가 미(협의)와 숭고인 반면에 바로크 복식의 주된 미적 범주는 추와 우아, 그리고 숭고였다. 특히 르네상스인들이 균형·비례·조화로운 형태에서 미적 쾌감을 느꼈던 반면에 바로크인들이 불균형·비대칭·부조화의 형태에서 미적 쾌감을 느꼈던 것은 미적 가치가 대상에만 존재하여 대상에 의해서 미가 성립한다는 객관적 의미의 미 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미가 성립한다는 주관적 의미의 미의 관점으로도 복식미를 분석해야 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IV. 결 론

복식은 19세기 후반 William Morris의 예술공예운동 이후 하나의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복식미 연구는 주로 복식의장학, 서양복식사, 복식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복식디자인 요소나 원리 또는 시대정신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즉 복식미는 객관적 의미의 미로만 파악되어 주로 미(협의) 즉 비례와 조화의 미 개념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인들이 균형·비례·조화로운 복식 형태에서 미적 쾌감을 느꼈던 것처럼 바로크인들이 불균형·비대칭·부조화의 복식 형태에서 미적 쾌감을 느꼈던 바와 같이 복식미는 대상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과 태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복식미는 객관적 의미의 미와 함께 주관적 의미의 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복식의 미적 범주는 주관적 의미의 미개념에 의해 다양해진 복식미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복식미를 파악, 분석하기에 적합했다. 미학의 미적 범주론에서 많이 언급되어 온 미(협의)·우아·우미·숭고·비장·골계·추는 복식의 객관적 의미의 미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미적 범주였다.

그러나, 미적 범주는 인간의 마음에서 느끼는 미적 쾌감을 근거로 분류한 것인데,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 칼처럼 정확하게 끊어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복식 형태라도 보는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미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보편적인 미적 공감대의 틀이 필요하며, 미적 범주는 그러한 틀로써 제시된 것이다.

본 연구는 복식미를 미학 이론에 근거한 미적 범주로 분석하는 방법을 보이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했으므로 이미 많은 시대에 걸쳐 비평이 이루어진 르네상스와 바로크 복식을 다루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20세기 복식의 미적 범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복식관련 서적은 물론 신문, 잡지 등에서도 패션비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션비평가라는 위상도 정립되고 있는데, 주관적 의미의 미인 미적 범주는 패션을 비평하는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Aesthetic Category of Dress
—Selected period of the Renaissance and the Baroque—

Choi, Soo Hy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Kim, Min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way to analyze and review the subjective view of the aesthetic for dress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aesthetic categories suggested by aesthetics. In order to define objectivism and subjectivism of the aesthetic of dress, theoretical studies on the aesthetic categories of dress were preceded.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aesthetic categories of dress for selected period, the Renaissance(16th century) and the Baroque(17th centu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objectivism of the aesthetic is the point of that an object causes human to feel and judge aesthetically, that is that of dress means formal characteristic of dress and pervasive ideology expressed in dress. The subjectivism of the aesthetic is the point that the aesthetic is rooted in human, that is that of dress has been studied in relation to the image,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r the aesthetic categories of dress. Especially, the aesthetic category is one of the universal and valid methods for the analysis of subjectivism of the aesthetic for dress.

This study includes beauty, grace, elegance,

the sublime, the tragic, the comic, aptness, ugliness as aesthetic categories of dress. Beauty is perfection and rule. Grace pleases human by sense. Elegance comes from the harmony of sense and spirit. The sublime comes into existence that human feels pleasure as well as displeasure simultaneously when human is overwhelmed by objects. The tragic is the sense of the presence of something valuable even if there is suffering. The comic is the sense of the presence of something amusing even if there is displeasure caused by contradiction. Aptness means utility in terms of the objectivism and, formality in terms of the subjectivism. Ugliness is opposite to beauty.

As the result of empirical studies, the aesthetic categories of the Renaissance dress showed harmonious, balanced, and symmetrical beauty, and the magnificent, and enlarged sublime. In addition to these, grace and elegance were also found to some extent. Aesthetic categories of the Baroque dress show feminine, soft, cheerful, and fantastic grace, asymmetric, disharmonious, and extraordinary ugliness, and the magnificent, grave, and dignified sublime.